

조국혁신당 전북 책임의원들의 다짐

“지역밀착형 정당으로 안착”

국회에는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전북은 국회의원 지역구가 10개 인 관계로 국회의원이 없는 상임위원회가 여러 곳이다.

때마침 지난 13일 조국혁신당 지도부에서 전북지역을 돕는 국회의원(전북 책임의원)으로 전복과 연고가 있는 강경숙 의원과 김재원 의원을 선정해서 발표했다.

옛 어른들이 하는 말씀 중에 ‘비싼 농사철에는 농사짓다가 고양이라도 도와주면 큰 도움이 된다.’라는 속담을 들은 일이 있는데,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회의원을 조국혁신당에서 돌아나 지원해 준다니 그저 반갑기만 하다.

조국혁신당은 단기간에 창당 후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만 내서 국민의 뜨거운 지지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6,87만4,278표를 얻어 24.25%의 득표율로 1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해서 주목받았다.

강경숙·김재원 의원… 국회 상임위 활동도 기대

활발한 활동 기간 동안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로 근무했으며,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된 후 첫 법안으로 무단조퇴를 말리는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린 7번 전학 경력 초등학생 사건에 대해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긴급한 교육현장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활동하는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로 전북 소속 국회의원이 없는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이 기대된다.

강경숙 의원은 “전북 출신의 유일한 국회 교육위원으로 더 빠르고 강

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10살이 되던 해인 1985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중학생 시절에 미국 가수 ‘사이먼 앤 가펩클’ 음악을 듣고 가수로서의 꿈을 가지게 된 그녀는 동명여자고등학교 1학년 때 통기타 동아리에 가입해 아마추어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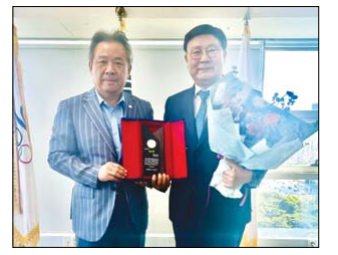
가수로서의 꿈을 키워오다가 당시 인기 있었던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를 즐겨 불렀으며, 1983년 2월 10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의 어느 한 코너에서, 전화로 휘트니 휴스턴의 대표곡인 ‘The Greatest Love of All’을 불러 우승했으며, 연말 공개방송 결선에서는 금상까지 받았다.

현재 김재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다.

김재원 의원은 “전북자치도민들이 정치에서 효능감을 느껴주길 조국혁신당이 지역밀착형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북을 4대 메카시티 속에서 소외된 ‘외판섬’이 아닌 전북지역에 필요한 사회권 인프라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강경숙 의원 (왼쪽) 김재원 의원 (오른쪽)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대한체육회장 공로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지난 13일 울림복지관에서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상받았다.

평소 문승우 의원은 체육인 출신으로서 지방체육 활성화 및 발전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앞장서 왔으며, 특히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지방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 의원은 “대한체육회로부터 이렇게 공로패를 수상해 너무나 영광스럽다”며, “전북의 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체육인들을 대신해 받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방체육 활성화 및 발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승우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 및 대한체육회 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인 민자유치 위원,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고, 군산시 9대 태권도협회장, 군산시체육회 부회장, 전라북도체육회 이사 등 역임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체육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특장차산업 육성·지원계획 시행, 기술개발 등 지원

나인권 전북자치도의회 발의 조례안, 농산경위 원안 가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410회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자치도 특장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장차산업은 건설, 레저,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특장차 전문기업 29개사가 김제시 백구면에 전문단지를 이루고 있다. 그간 전북자치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로 국비에 일정부분 매칭하는 수준이 전부였지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속도감 있는 육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지원계획 시행, △인력양성,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하도록 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 전국 최하위”

이명연 전북자치도의회, 도 자연재해 예방사업 질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이 전북자치도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허술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최근 5년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액은 총 2,147억2,200만원에 이르며, 복구액은 피해액의 3배 정도인 약 6,600억에 달한다.

또한 침수위험지구 등 도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도 2021년 317개소, 2022년 331개소, 2023년 351개소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전북자치도의 재해예방사업은 매우 소극적이며 허술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전북자치도는 작년 감사원으로부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투자(정비) 우선순위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정한 심사기준이 있음에도 전북자치도가 특별한 사유없이 순위를 임의로 조정해 실제로 시급하게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곳은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고 순위가 낮은 지역이 선정되는 등 우선순위 선정의 불공정성을 지적받은 것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침수 피해가 확대돼 환경부에서 2013년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

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총 194개소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방재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전북자치도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하위인 4개소에 불과하다. 인근 전남은 33개소, 경북은 27개소, 충북과 충남은 각 19개소 가 지정돼 사업을 추진중이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은 하수관로 정비 및 빗물 펌프장, 빗물받이 등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해 도시침수를 대응하는 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국비 지원 규모는 개소당 평균 200억에서 300억에 이른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재해위험지구의 경우 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예산부족으로 예방사업을 하지 못한채 자연재해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반해 사업내용이 유사한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의 경우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어 부시간 재해대응사업에 대한 교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전북자치도가 자연재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재해예방사업 투자 우선순위 선정때 기존에는 서면심사로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현장실사 과정을 추가해 공정성 및 합리성을 보완하겠다”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경우 신규지구 발굴을 위해 6월 말까지 도가 직접 점검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 기업 해외진출 확대·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북자치도 기업 해외진출 확대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OKTA 애크라타-전북 TP 업무협약식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OKTA 애크라타지 박남권 지회장,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이 참석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불용사업, 꼼꼼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야”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 이어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결산심사 3월차인 지난 14일, 미래산업국, 새만금해양수산국, 자치경찰위원회, 농업기술원, 인력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김술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해파리 제거사업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데도 제거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시기에 맞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 수립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염영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은 미래산업국 소관과 관련해 군산 풍력발전 현황과 ‘군산 풍력발전소 운영’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물으며, 향후 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으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청년 취업 방안에 대해 묻고, 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수산기술연구소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미래산업국 소관 ‘전북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특성화 방안 수립’ 사업과 관련해 사업 내용에 대해 질문하며, 상세한 내용 설명과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중고차 수출확대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 중단으로 예산이 전액 불용돼 국가에 반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면밀히 살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국내 크루즈 운영 현황에 대해 묻고, 인프라 구축 및 지리적 특성 등을 면밀히 살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만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은 미래산업국 소관 ‘중고차 수출확대단지 조성사업’ 예산이 민간사업자 자금 미확보로 사업 중단된 것은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은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해파리 제거사업과 관련해 불용불급하지 않은데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문제라며, 추후 예비비를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미래산업국 소관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묻고, 중고차 수출확대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은 문제라며, 예산 운용에 철자를 기할 것과,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부서 예산액과 애로사항을 물으며, 예산의 집행잔액과 이월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고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은 미래산업국 소관 명시내일 사업이 과다한 것과 추경에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연구용역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수질환경 개선사업의 성과목표가 새만금 수질환경에 도움이 되는 목표치인지 의문이라며, 상세한 설명을 주문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관련해 세외수입에 대해 물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다.

전용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은 미래산업국 소관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문제라며, 사전검토 등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자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순창군의회 정례회 개최

2023 회계연도 결산 등 심사

순창군의회(의장 신성)는 지난 14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85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마희룡)를 열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신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9대 순창군의회가 출범한지 2년여가 되어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깊은 성찰로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군의회 정례회 폐회

세입·세출 결산 등 안건 처리

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는 지난 14일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임실군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6건의 안건을 의결·처리했다.

이성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군민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격려가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늘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 엇그제 우리 지역 인군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연재 여진이 더 발생할지 모르니 지진과 관련된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지진대피 훈련과 행동 요령을 보완하는 등 지진 대응 역량을 강화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